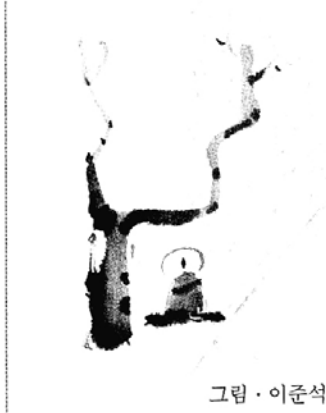


한형조 무문관 탐방

56

세존의 채찍

*어느 외도(外道)가 물었다. "말씀에 대해서도 묻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묻지 않겠습니까." 세존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외도가 찬탄하며 말했다. "세존의 대자대비가 나의 어지러운 구름을 해쳐 깨달음에 들게 해주었습니다." 예를 갖추어 절하고 떠났다. 아난이 부처에게 물었다.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난이 세존을 모시고 있던 어느날, 외도가 찾아와 세존에게 물었다. 외도란 지금은 불교나 혼외정사를 가리키는 혼란한 말이 되어 버렸지만 당대의 의미는 '불교와는 다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가리켰다. 이는 당연히 불교가 성립된 이후의 용어이다. 처음 등장하는 외도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세존께서 처음 굴린 그 법바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다. 고행을 떠난 세존을 처음에는 비난하다가 이윽고 반신반의하다가 나중에 그 고요한 기풍과 확신에 찬 거조에 제자가 되기를 자청했던 그 사람들.

이런 외도는 그들과는 좀 달라 보인다. "말씀도 묻지 않고, 말 없음도 묻지 않겠다"고 한다. 이게 물음의 전부가 아니다. 신기한 화법이다. 그럼 무엇을 묻겠다는 거냐는 의아한 얼굴에, 그걸로 끝. 더 이상 아무 말도 없다. 외도는 지금 물음이 아닌 물음을 던지고 있다. "언어도 침묵도 통하지 않고 진리를 드러내줄 수 있는가"를. 그동안 이런 딜레마를 자주 보아왔다. 가령, 덕산은 풍풍이를 흔들면서 "뭇지니 묻겠다"고 입을 벌리는 눈이 있으면 그만 두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나면 신라에서 유향은 수행자

"일터는 수행처... 마음 챙기며 작업"

일터는 우리에게 깨달음의 경험을 안겨줄 수 있는 곳이다. 일터가 수행처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육류 계랑기를 만드는 공장의 한 공정 라인에서 계랑기의 나사못을 박는 일 일지라도 '명상적 자각' 혹은 '마음 챙김' 등을 실천한다면 사찰에서의 수행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일터를 수행처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공정 라인에서의 작업은 단순한 원칙과 수없이 반복되는 절차를 밟

작 · 콘피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16

냉장고를 고치는 수선공은 모든 감각과 생각을 집중해 고장난 부분을 찾아내고 고친다.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그것과 똑같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수행과 동일하다. 우리가 마음 속에서 찾는 그것.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것은

햇살이 비치면 법복을 입고 달빛이 비치면 선(禪)을 노래하네. 산 속의 생활. 벗들에게 말할 일 없지만! 벗들이여! 그대들이 삶의 진실을 원한다면 '육망'은 그만 놓게 나.

"수선공 · 의사 · 간호사의 일 자기 다스리는 수행과 같이 집착 버리고 의무 다하라"

복잡하고 혼란한 속에서는 얻을 수 없다. 우리가 만지고 듣고 느끼는 유 · 무정물에서 오는 것이다. 시인 로잔은 이렇게 노래했다. 울창한 숲 속 오두막의 초록색 담쟁이덩굴 키는 매년 커가네. 나무꾼의 노래만이 간혹 들리고 세인(世人)의 소식은 들리지 않네.

여기에는 비폭력 운동을 전개한 간디. (작은 것이 아름답다) <불교 경론>을 남긴 수마하박사 등의 삶에 녹아든, 정명(正命)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철학들이 배어있다. 그들의 삶은 유 · 무정물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됐다. 그들은 '필요'하다는 욕망만을 가지고 유 · 무정물을 대하지 않았다. "내가 돌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등 유 · 무정물들과 연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명의 미덕 중에는 봉사정신도 있다. 냉장고를 고치는 수선공이 부처라는 말은 수선공들이 일터에서 고객들의 혼란스럽고 불편한 마음을 잡아주고, 이로 인해 고객들이 타인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세상과, 더욱 긴밀한 친교를 맺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찾는 길에는 사심없는(無慾) 행동의 길이 있다. 일터에서 불법을 실천하라. 당신의 의무를 다하라. 그러나 집착은 말라. 이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당신이 일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리에 도달하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당신이 어떤 성과를 바라고 행동한다면 삶은 그때부터 무자비한 것이 될 것이다. 현명한 지혜는 욕망과 집착없이 일하는 것이다.

<바가바드기타>의 이 시구는 바른 생활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사심없는 마음으로 일할 때 정명을 실천하는 것이며, 또 보다 많은 행복을 만들어낼 것이다. 당신이 어떤 성과를 바라고 행동한다면 삶은 그때부터 무자비한 것이 될 것이다. 현명한 지혜는 욕망과 집착없이 일하는 것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pia.com)

정명 ②

아야 한다. '원칙과 화법'.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눈으로 보는 여술가, 임상사, 정비사, 영업사원 등의 작업에서 똑같이 나타난다. '원칙과 화법'에서 느끼는 권태로움을 이기고 수행의 길로 나아가는 첫번째 단계는 이것들에게 우리를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일터에서 명상적인 삶이 가능한가' '작업하는 도중에 '마음 챙김'이 어떻게 가능한지' 등의 질문을 계속 던지면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의식은 단계적 성장하고, 사찰 수행에서 얻어지는 깨달음과 동일한 비경과 무게를 가지고 있는 자각을 얻을 수 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65

어떤 소수의 곱도 될 수 없다. 이 기 본원리를 이용함으로써 수에 관한 여러 성질이 많이 규명되었다. 그러나 수학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기령 1, 2, 3, 과 같은 자연 수 전체를 합해서 만들어지는 수의 표현 방법은 무한히 많으며 요소환원주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전체에는 그 요소에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성질이 있으며 요소환원주의에 대립되는 전체론(全體論) 제석천(帝釋天)의 궁전에 걸려 있

하는 '1'이기에 '1'을 보는 일은 곧 전체를 보는 것이며, 있는 그대로 '산은 산, 물은 물'로 보는 것과도 같다. '1'과 '多'는 個(요소)와 전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요소와 요소, 전체와 요소의 상관관계에서 저마다 요소, 전체의 성질이 정해진다. 특히 <화엄경>에서는 시간, 공간을 초월한 존재로서의 부처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기본사상은 '1-即多 多-即1'이다. 제석천(帝釋天)의 궁전에 걸려 있

불교의 대상은 인간이며, 불교적 과학관은 인간학이며 인간의 무한성을 전제한다. 지금 돌을 던지면 공중에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그것은 던질 때의 힘으로 지배되는 요소환원주의적인 사고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작은 새를 던지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카오스적인 곡선을 그린다. 새의 의지에는 무한의 선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한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대상에서 이들 각 요소가 다른 요소의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할 때는 전체의 움직임이 각 요소(부분)의 단순한 힘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각 요소간의 관계이며, 있는 현상을 해부해도 알 수 있는 것은 제한된 무기물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으며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명제가 진리로서 통한다. 이때 살아 숨쉬는 인간이 산과 물에 관련되면서 함께 정보와 가치를 나누는 것이다. 근대 과학의 요소환원주의는 주로 무기물을 다루는 물리학에서 출발했다. 또한 이를 낱알의 영상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영상도 담겨 있다. 그것이 또한 다른 보석에 비치고, 또 그 속에 자신의 모습이 있고 종종무진(叢叢)의 영상이 다중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곧 '1-即多 多-即1'의 세계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불교와 수학

60 카오스와 전체론

근대과학의 방법론은 기본적인 요소들의 성질을 이해함으로써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요소환원주의'의 입장이다. 모든 물질이 원자의 결합으로 유일적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전형이다. 뉴턴은 거대한 행성 궤도를 태양과 행성과의 힘의 관계로 환원하여 계산했다. 이때의 요소는 태양과 행성이다. 수학과 이 수학이 이용되었다. 정수론의 기본 요소는 자기 자신과 1 이외의 약수를 갖지 않는 소수이다. 기령 2, 3, 5, 7, 과 같은 것이 소수이다. 한편 6의 약수는 1, 2, 3, 6 이며 소수가 아닌 합성수이다. 수학 가운데서 특히 수의 성질을 다루는 정수론의 기본정리는 '모든 수는 소수의 곱으로(순서만 생각하지 않고) 유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인수분해의 원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는 1, 2, 3, n과 같은 자연수를 말한다. 즉 6은 2와 3, 두 개의 소수의 곱으로 표시되며 다른

공중에 돌을 던지면 포물선 그리나 살아있는 새 던지면 카오스선 그려

요소 환원주의 요소간관계 설명못해 '일즉다 다즉일' 무한 전체한 전체론

이 요청되는 것이다. 불교에는 '1-即多 多-即1'의 철학이 있고 한편으로는 성철선사의 말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즉 있는 그대로, 전체를 분할하지 말고 보라)는 전체론적인 입장이 있다. 일찍 보면 과학과 불교는 모순된 체계처럼 보이며 불교는 때로는 신비주의로 오해를 받는다. 그러나 '1-即多 多-即1'의 '1'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무한성이다. 무한을 전체로

하는 '1'이기에 '1'을 보는 일은 곧 전체를 보는 것이며, 있는 그대로 '산은 산, 물은 물'로 보는 것과도 같다. '1'과 '多'는 個(요소)와 전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요소와 요소, 전체와 요소의 상관관계에서 저마다 요소, 전체의 성질이 정해진다. 특히 <화엄경>에서는 시간, 공간을 초월한 존재로서의 부처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기본사상은 '1-即多 多-即1'이다. 제석천(帝釋天)의 궁전에 걸려 있

불교의 대상은 인간이며, 불교적 과학관은 인간학이며 인간의 무한성을 전제한다. 지금 돌을 던지면 공중에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그것은 던질 때의 힘으로 지배되는 요소환원주의적인 사고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작은 새를 던지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카오스적인 곡선을 그린다. 새의 의지에는 무한의 선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한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대상에서 이들 각 요소가 다른 요소의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할 때는 전체의 움직임이 각 요소(부분)의 단순한 힘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각 요소간의 관계이며, 있는 현상을 해부해도 알 수 있는 것은 제한된 무기물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으며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명제가 진리로서 통한다. 이때 살아 숨쉬는 인간이 산과 물에 관련되면서 함께 정보와 가치를 나누는 것이다. 근대 과학의 요소환원주의는 주로 무기물을 다루는 물리학에서 출발했다. 또한 이를 낱알의 영상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영상도 담겨 있다. 그것이 또한 다른 보석에 비치고, 또 그 속에 자신의 모습이 있고 종종무진(叢叢)의 영상이 다중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곧 '1-即多 多-即1'의 세계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낭떠러지서 잡은 손 놓아라"

언어도 침묵도 통하지 않고 진리 드러 낼 수 있다

물두하기도 했다. 자신은 이단이나 별종이 아니라 창시자의 가르침 바로 거기에 달아놓은 것을, 초기교단을 조직하고 교리를 체계화한 사리불을 제치고 두타제일이라는 가섭을 내세워 열화미소의 전설을 만들어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이런 말에 섭섭해할 것은 없다. 진정 가치있는 것은 육안을 비껴가는 법이고, 진실은 역사가들의 기술 너머에 있는 것. 감각이 허구이고, 제상(諸相)이 비상(非相)이라면 사실과 상상 사이의 생각보다 그리 멀지 않을 수 있다. 이중적 의미에서 그렇다. 우리는 소설을 허구로, 시를 상상력의 비실제적 공간으로 여긴다. 그렇지만 한 편의 시와 소설이 주는 감동은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놓기도 한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한편 외계를 의심할 바 없는 실제로 확인시키는 감각과, 그를 표상하는 사유와 언어는 그렇지만 궁극에 있어 비실재적인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명상을 통해 사물에 대한 집착력을 줄여가는 훈련을 해 보아야 한다. 그 도장에서 언제쯤 <금강경>의 비외적 언설이 이해되기 시작할 것이다. "수부티야, 존재는 존재가 아니라라고 여러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그런 까닭에 존재라 말한다(須菩提, 所言一切法者, 即非一切法, 是故名一切法)" 지금의 이야기는 그 짧은 듯 생생한 듯한

하나가 걸려들었다. 훌륭한 업포에 울퉁하여 국으로 가만히 있는 관인데 덕산이 법다 몽둥이질을 해낸 것이다. "아니, 가만 있는데 왜 때립니까" 항의하자, "배를 타고 떠나고 나면 패를 수가 없을까 아니냐"고 응수했다. 선사들은 이런 지런 방편설정을 통해 제자들을 막 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다. 병숙의 새를 깨내 보리든가, 향연처럼 나뭇가지를 물고 대답을 해 보라던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도망갈 길은 없다. 언어도 침묵도 허여되지 않는 칠통 속에서 수행자는 번민한다. 답답하고 후덥지근한 그 좁은 공간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누구는 그저 앉아 있어 보라 하고(只 管打坐), 누구는 화두를 성성(惺惺)하게 잡고 있오라 권한다. 노리는 효과는 같다. 집중! 할 것.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기계음이 명상을 방해하고 세속의 이런저런 잡사가 정신을 끌어먹는 말세(末世)를 살고 있다. 아무래도 현재에서는 자신의 본래면목과 대면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금생(今生)은 짧고 다음 생의 운회를 기다려 볼까나. 그러다 후생이나 아귀의 몸을 받으면 만사휴의(萬事休矣). 지금 여기가 아니면 다음 기회는 없다. 당지(當知)하라. 삼계(三界)가 화택(火宅)이고 생사(生死)는 화급하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장가안가길 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게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 2권 각권 6,500원)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우학 스님의 책

- ▶ 삼천배 삼천부 침입(신간) 삼천배를 쉽게 하는 책
- ▶ 마음을 밝게 주는 새 법구경(신간)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모음집
- ▶ 저게는 맨날 고기 묵고... (전 4권) 불교가 이렇게 재미있군요...
- ▶ 새! 온 불교 공부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 불자수 명지집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총 망라!
- ▶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상·하)
- ▶ 불교 EQ 100
- ▶ 불교 만화 시경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사경, 초발심자경문, 중도가 의 대수

◆ 난치병 치료 ◆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한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한약(약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치료됨

※ 당뇨 동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지신왕기환(治身旺氣丸)** 여래한방원장 시연스님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천이백여년전 당나라 선도의술(仙道醫術)의 의성(醫聖) 주진형의 놀라운 비방약인 기적의 지신왕기환(治身旺氣丸)은 사향·호골(虎骨)·인삼·박하수·적화수·원방풍의 30여종의 약재로 만들었으며, 손상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오장육부의 치료. 중풍·근육의 모든 통증 및 마비증·당뇨병·소화불량·심장병 등의 치료와 예방을 하며, 복용할수록 정수(精水)가 풍부하게 생겨서 왕성한 정력이 솟아남으로 회춘(回春)이 되고 피부도 윤택해진다.

■ 진 리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 전화문의 : (053) 628-9145 (053) 655-3027

대구여래한방

호스피스 전문인 양성교육 안내

I AMITA HOSPICE 교육에 관하여...

어디에서? 충북, 청주 대한불교 조계종 청주자원봉사센터 교육원

언제부터? 1998년 7월 2일 개강하여 7월 30일 종강식

준비물 소명합판사진 4장, 필기도구 꼭 지참

교육내용 7월 2일부터 매주 수, 목, 오전 10시부터 교육

교육대상자 포교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스님, 법사님 그리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일반 불자들.

※ 교육후, 대한불교 조계종 지원봉사 단원증과 수료증 발급!

문의 연락처 ☎ 0431) 54-2258/54-1457

대한불교조계종 자원봉사 청주·청원 불자연합 교육센터 원장 여 현 정 합장

윤달수의

미리 준비하면 무병장수한다는 윤달 수의를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신 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세요

스님, 불자들의 불교식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전국불교장의연합회

장례발생 즉시연락

- 서울 연희동연회 02)732-9618
- 수원 연희동연회 031)241-5848
- 청주 연희동연회 0431)65-6626
- 대구 지정동연회 053)654-0055
- 광주 불교총연합회 062)226-5161
- 부산 양운산정령계곡연회 051)554-0300
- 나주 불교총연합회 061)323-1224
- 지정동연회(주) 059)39-5115

불교식 장례 종합서비스